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년 1월 26.(화) 15시30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1. 1.25.(월) 13시 30분	대변인실	최충호(02-2100-3031)
담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담당과장	강대현(02-2100-2451)
		담당자	심성재 사무관(02-2100-2453)

20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계획

「회복 · 포용 · 도약 대한민국 2021」

-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 인공지능 등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준칙 마련(3월)
- ◆ 복잡하고 어려운 동의방식을 국민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하게 개선
- ◆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등 생활밀착분야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 ◆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확대

정책 추진성과 및 2021년 업무계획 관련 체감사례

- (추진성과 : 코로나19) 직장인 A씨는 음식점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 이름을 제외한 휴대전화번호와 거주지(시·군·구) 정보만을 기재하면 되고, 음식을 포장할 경우에는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방문시마다 개인정보수집·제공·이용에 동의하는 번거로움 없이, 최초 1회만 동의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1년 계획 : 데이터 결합) 2년 전 암을 극복한 B씨의 요즈음 최대 관심사는 건강, 그 중에서도 특히 당뇨병 예방이다. 얼마 전 담당 주치의로부터 당뇨병 발생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높아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B씨의 가족력, 암치료 정보, 치료 후 검진 정보를 종합적으로 상담·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B씨가 질병을 진단 받기도 전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데이터 결합을 통한 예측 모델 덕분이다. 암치료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데이터의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결합된 정보로 인공지능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암 경험자의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다.

※ 추가 사례는 별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 참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전후 추진성과 >

- 지난해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된 개인정보 규제 및 침해대응 기능을 일원화*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합 감독 기구로 출범('20.8월)하였다.
 - * 행안부(공공·민간 총괄), 방통위(온라인), 금융위(상거래 조사·처분) → 개인정보위
- 출범 직후에는 효율적 **코로나19 방역** 체계는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은 철저히 준수하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했으며,
 - *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20.9월), 열화상카메라 개인영상 저장금지('20.11월)
- 페이스북社(과징금 67억원)등 보호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분**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하였다.
- 또한 가명처리·결합의 기준 제시 및 결합전문기관 지정 등 **가명정보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과급효과가 큰 **결합 시범사례** (5대 분야 7대 과제)를 발굴하는 등 안전한 활용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 아울러 중장기 정책 로드맵인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1.~'23.)을 수립하고, 정책소통릴레이 운영 등 민·관 소통체계를 강화하였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업 등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을 마련하고,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 2021년에 중점 추진할 주요 신규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인정보 이슈 해결 및 신산업 불확실성 해소**
 -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 * 인공지능(AI)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3월) 등
 - 이와 같은 신산업 보호기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법제화 등 개인정보 이슈를 관계자와 함께 논의하는 (가칭) **개인정보 공론화 포럼**을 구성한다.

② 국민 관점에서 알기 쉬운 동의제도 개편

- 국민이 명확히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정성을 알기 쉽게 표시한 **신호등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 수집·제공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도록 지원*한다.

* 표준 동의편람 발간을 통해 기업의 수집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시각화한 개인정보 리벨링 도입 유도

※ 기업 등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정성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심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아울러 서비스 계약체결·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과도한 사전동의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③ 국민 생활밀착분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코로나19 방역 전반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해 방역 당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종합점검하고,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할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최초 1회 발급으로 코로나19 종식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최근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증가한 ①통신대리점(고객정보), ②오픈마켓(판매자 계정), ③배달앱(주문정보), ④택배(운송장), ⑤인터넷 광고(행태 정보) 등 생활밀착 5대 분야의 보호 실태도 선제적으로 확인한다.

④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보호 **R&D 전략 로드맵**(5개년)을 수립한다.

- 아울러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수도권1, 비 수도권1), 가명·익명 처리 전문인재 양성(450명), 스타트업 전용 컨설팅 창구 설치 등을 통해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올해를 **출범 원년**으로 삼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나가겠다고면서

-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데이터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별첨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발표문

[별첨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 자료

비전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

3대
추진
전략

전략 1 국민이 신뢰하는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전략 2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전략 3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고도화

10대
추진
과제

1. 국민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2.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대

3. 생활밀착분야
선제적 점검·대응

4. 참여형 개인정보보호
생태계 조성

5. 데이터 시대에
기업의 불확실성
신속 제거

6. 기업의 보호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7. 지속성장 가능한
기술개발 투자 및
인재양성

8. 가명정보 활용
성과 창출

9.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의
획기적 제고

10. 개인정보보호
협력·조정 강화

기반

제2차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